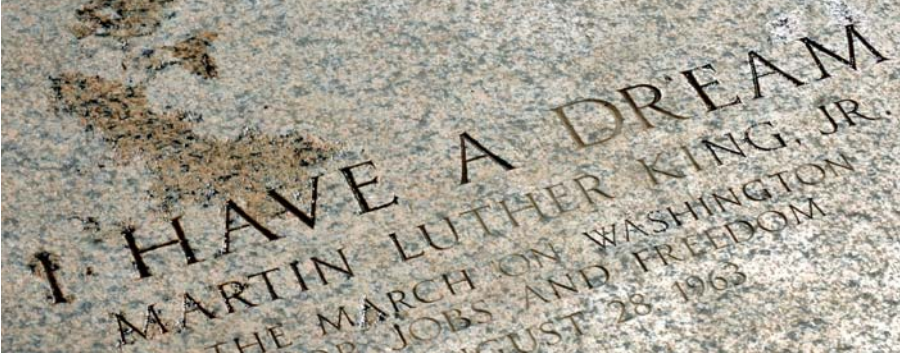


기획



기념관의 한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링컨 대통령 좌상의 양 옆에는 게티스버그연설문과 재선취임연설문이 새겨져 있다.



기념관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는 1963년 마틴 루터목사의 'I have a dream'의 연설문구가 새겨져 눈길을 끈다.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서쪽끝에 자리하고 있는 링컨 기념관 전경. 자유와 평등을 신봉한 링컨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모델로 건립됐다. /워싱턴 D.C=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미국 대통령기념관에서 배운다

'김대중 기념관' 글로벌 명소로

(4) 링컨 기념관

링컨의 '눈'은 지금도 의회의사당을 보고 있다

워싱턴 D.C=박진현 문화예술 선임기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명실상부한 세계 정치의 중심지다. 오늘날 미국은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퍼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은 일년 내내 전 세계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붐빈다. 특히 지난 4월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워싱턴의 '명품'으로 자리잡은 벚꽃축제기간과 맞물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외국에서 수학여행온 학생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취재를 하는 동안 다양한 외국어들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내셔널 몰 서쪽끝에 자리한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은 매년 2500만 명의 관광객이 빠지지 않고 들르는 명소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1809-1865)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이 곳은 백악관과 함께 미국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다. 고 노무현 대통령(2003년), 줄리아 길러드 호주총리(지난 3월) 등 워싱턴을 방문한 외국 정상들도 앞다투어 둘러봤다. 일반인들에게는 1963년 8월28일 흑인 민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나에

겐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의 명연설을 남긴 곳으로 더 유명하다. 특히 이 기념관은 캔터키주 하젠빌 생가, 변호사와 주 하원시절을 보낸 '정치적 고향'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의 링컨 박물관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 가장 인기가 높다.

미국인들에게 링컨은 위대한 대통령 '그 이상'이다. 대통령 재임기간(1861-1865)동안 노예해방선언과 남북전쟁 승리로 분열위기의 미합중국을 통합시킨 위대한 지도자이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할 만큼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돼 있다. 지금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꼽히고 서거 이후 출간된 링컨 관련 서적이 1만6천여 권에 달한다. 이쯤되면 그에 대한 향수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간다.

사실 미국인들에게 링컨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신화적 영웅에 가깝다. 여기에는 가난한 오두막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변호사, 주 하원의원을 거쳐 대통령에 오른 뒤 예수의 수난일(4월15일)에 암살되기까지의 드라마틱한 인생스토리가 한류한다. '반쪽'으로 갈라질 뻔한 위기의 미국을 구하고 끝내 '순교'한 링컨을 (후손들은) 자신들의 우상이자 세계의 위인으로 재탄생시켰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위한 정치' 연설문새겨

年 2500만명 방문...백악관과 함께 美 랜드마크로

이 같은 미국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링컨 기념관이다. 내셔널 몰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 좋은 곳'에 위치한 링컨 기념관은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을 연상케 한다. 신을 모셔놓은 듯 경건하면서도 웅장한 스케일(가로 58m, 세로 30m)이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낸다.

설계자인 헨리 베이컨은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한 지도자의 기념관은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건축구조를 지녀야 한다고 믿었다.

링컨 기념관에서 관리를 맡고 있는 에드워드 플래밍(Edward Fleming)은 "기념관은 도리아 양식의 36개 기둥이 일렬로 외곽을 두르고 있는데 이는 링컨 대통령 재임시 36개주였던 미국의 단합을 상징한다"면

서 "지난 1867년 계획했으나 자금부족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1914년 착수, 8년만인 1922년 5월30일 당시 하딩 대통령에 의해 봉헌됐다"고 설명했다.

기념관 내부는 크게 3개의 방 구조로 설계돼 있다. 이 가운데 중앙에는 거대한 링컨 대통령의 대리석 좌상이 방문객들을 맞는다. 조각가인 피치펠리 형제가 4년에 걸쳐 제작한 좌상은 원래 3m크기였지만 거대한 기념관에 비해 왜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2배 규모인 6m로 완성됐다. 좌상 뒤에는 '에이브러햄 링컨의 명성은 그에 의해 구원된 미국인의 마음과 여기에 영원히 숨쉬고 있다'는 글귀가 적혀 있다.

좌상 양 옆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유명한 1863년 게티스버그 연설문과 1865년 재선취임연설문이 새겨져 있어 방문객들은 잠시나마

링컨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 "아무에게도 원한을 갖지 말고, 모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으로, 우리의 일을 완수하고 이 나라의 상처를 꿰뚫는다"는 재선 취임연설은 남북전쟁 승리 직후에 한 것으로 취임사의 백미로 꼽힌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링컨 대통령의 시선이 의회의사당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의원들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민의(民意)를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권모술수의 횡포를 저지르는 것은 아닌지, 감시하는 듯 내려다보는 눈초리가 매섭다.

미 국립공원 관리국(National Park Service·NPS)은 링컨 기념관을 비롯한 내셔널 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해설이 있는 투어'(Daily Interpretive Programs)를 운영한다. 방문객들은 NPS 소속 관리원(Ranger)들의 안내로 링컨 기념관 등의 의미 뿐 아니라 남북전쟁, 내셔널 몰, 워싱턴 D.C의 역사 등을 배우는 기회를 갖는다. 특히 링컨 기념관에서는 매일 두차례 '링컨의 암살'(Lincoln's Assassination)' 강좌를 개최해 링컨 대통령이 존 윌크스 부스에 의해 암살된 당시 상황과 그를 체포하기까지의 과정 등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jhark@kwangju.co.kr

조용기목사초청 영적각성 광주대성회



조용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

빛고을 광주에 성령의 불길을! 와 보라! 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의 성회에

목회자를 위한 특별세미나

- 일시 : 2011. 5. 18(수) 오전10시
•장소 : 홀리데이인 광주호텔
•강사 : 조용기목사, 이영훈목사



송경용 목사 광주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원재 목사 광주기독교연합회 성명부회장, 채성남 목사 광주성서화문운동본부장, 류인구 장로 광주성서화문운동본부장

일시 : 2011.5.17(화) 저녁7시30분 장소 : 광주순복음교회 대성전 주최 : 광주광역시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시성서화문운동본부